

대학원생 논문 발표 \_ 3분과 복지/체육1

##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범죄의 심리적 메커니즘분석 -가정폭력에서의 소통방식과 폭력 양상을 중심으로

박민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교정복지연구소 연구원)

### I. 서론

비행과 범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와 함께 존속되어 왔다. 범죄퇴치를 위한 인류의 노력은 다양한 제도 및 실천 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문적 실천체계와 이론구축을 시도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통전적 이해와 근본적 대책마련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최근 인간행동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고찰이 신앙(영성)중심 연구(faith-based approach)라는 이름으로 심리, 사회, 교육, 사회복지 등의 행동과학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영성과 범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효과 혹은 역할에 대한 관심의 급증은 연구자들이 「개인이 가진 종교성(spirituality)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sup>199)</sup> 동시에 종교기관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Johnson, 2011). 최근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종교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의 도덕성을 높임으로써 범죄경향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 범죄인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줌으로써 범죄인을 교화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범죄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민선, 2012).

과학과 종교를 분리하는 전통적인 과학연구방법을 극복하고 기독교적 원리와 영성에 근거하여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는 이론 및 실천영역에서의 시도는 더 깊이 있고 본질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행과 범죄에 대한 영역인 교정복지 영역은 기독교 영성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실천체계와 개념, 용어의 정의를 통합하는 작업을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히 필요로 한다. 기독교세계관은 인간의 범죄와 비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갈등과 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해석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분석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에 대하여 실증적 근거를 밝혀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범죄와 비행분석이 미흡하였고, 또한 이것이 기독교 영성을 근거로 한 고유의 전문적 이론 및 실천체계 구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복음적 시각에서 비행과 범죄영역을 조명하고 그 원인과 구

199) 그리스도인이면서 교정영역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런 존슨(Byron R. Johnson)교수의 저서 「More God, Less Crime」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영성과 범죄 간의 관계를 연구한 중요 논문만 해도 200편이 넘는다. 미국에는 이미 영성의 측정, 영성과 반(反)사회적 행동의 관계, 영성과 친(親)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상당한 양의 실증 연구들이 존재하며, 특히 마약중독, 성중독, 관계중독, 섭식장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영성은 이를 빼 놓고는 치료 자체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핵심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 학자가 아닌 세속 학자들 사이에서까지도 인정되는 사실이다.

체적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한편, 이를 인간의 본질적 변화의 문제로 확대하여 전인격에 걸친 인간성 회복에 대한 통합적 대안을 찾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범죄의 심리적, 행동적 메커니즘을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일은 범죄의 문제를 일부 범죄자의 특이하고 파렴치한 특성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 즉 죄성(罪性)으로 일반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범죄에의 접근이 기존의 행위중심, 사법체계 중심의 범죄행동 분석 흐름에서 동기 중심, 본질적 속성 중심으로 분석의 초점이 옮겨진 접근임을 뜻한다. 또한 단편적이고 범주화된 접근이나 처벌 위주, 사후처리 중심의 분석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분석으로 관심의 초점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음적 시각을 적용한 교정복지의 비행 및 범죄접근은 그 대상을 전통적 가해자에서 가해자 가족, 피해자, 피해자 가족, 지역사회, 전 사회구성원으로 확장한다. 가해자의 범죄의도와 범죄행위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되는 한편,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가해자의 상처와 왜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해자의 가족과 주변 환경, 사회적 맥락까지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죄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인간이라는 전제하에 피해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손상이나 파괴를 간과하거나 부추기는 경우 이에 대한 통전적 분석과 대응을 통해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성경적 시각에 근거한 교정복지의 일반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원론적 의의와 당위성 제시 외에도 구체적으로 범죄와 비행의 발단, 발전, 회복과 치유의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이론 및 실천체계로서의 각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정복지의 일반화 근거 및 범죄의 메커니즘과 주요 원리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범죄와 비행을 포함한 제 갈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통합적 이해와 대안마련을 목적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배경

### 1. 범죄의 일반화 추세와 범죄에 대한 시선 및 접근방식의 변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비행과 범죄의 특징적 경향은 범죄와 비행의 사회적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다양해지며, 그 범위가 폭넓게 확대된다는 것이다(최옥채, 2006; 이원복, 김미숙, 박민선, 박혜련, 2011). 특히 비행과 범죄 행위자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장되는 범죄의 일반화 추세는 뚜렷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범죄의 일반화 경향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비행과 범죄의 시작연령이 점차 낮아져 어린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되는 범죄 및 비행의 저 연령화 현상으로 인한 아동청소년범죄의 증가경향이다(김지선, 2003; 김은경, 2007). 둘째,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지수가 높아지면서 점점 범죄율이 극히 낮았던 노인범죄의 수가 증가하는 노인범죄의 증가현상이다(이숙경·홍정민, 2011). 셋째, 여권신장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속에서 여성의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현상도 범죄의 다양화 및 일반화와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일탈행동, 즉 인격 장애, 우울증, 자살 등 범죄 관련 스펙트럼 증상이 늘어나면서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호기심이나 원한으로 인한 우발성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면 최근으로 갈수록 개인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이수정·허재홍, 200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범죄에도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스펙트럼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추세들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이 다양해지며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사회 내 만연한 도덕불감증, 크고 작은 불법행위의 남발, 점점 왜곡되어 가는 성윤리와 지식윤리, 상거래 윤리와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물질만능주의 추세를 볼 때, 우리 사회에 범죄와 비행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범죄추세를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범죄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사회적 소외로 인한 빈곤 탈피를 목적으로 한 물질과 재화의 불법적 추구문제가 아니라, 특정 계층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갈등문제라는 사실이다. 그 결과 범죄의 범위는 다양하게 확장되었고 그 양상은 복잡해졌다. 범죄와 비행의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경험할 수 있는 보편문제로서 특정 개인의 기질이나 운명의 문제를 넘어 내면의 가치관과 깊은 관련을 가진 생활양식과 삶의 문제인 것이다.

범죄와 비행 추세의 변화는 범죄에 대한 시선과 접근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 정책적 대응이나 법적 대응과 같은 범죄 행동에 대한 개인의 처벌 혹은 사회로부터의 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복과 치료의 개념이 포함된 재활이나 재사회화의 측면에서 범죄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범죄대응방법이라」는 주장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용세·류병관, 2006; 김은경, 2007; 이진국·오영근, 2008; McCold, 2003). 또한 범죄에 대한 접근을 개인 및 상황적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고, 범죄와 범죄인에 대한 통합적, 통전적 시각을 적용함으로써 범죄인을 궁극적으로 사회 내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교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상으로 대하는 인격적 접근이다. 청소년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증가나 회복적 사법의 적용,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증가, 교정영역에서의 종교기관의 참여 확대 등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김용세·류병관, 2006; 김은경, 2007; 이진국·오영근, 2008; McCold, 2003; 김지선, 2003).

이와 같은 범죄의 일반화 추세와 범죄에 대한 시선 및 접근방식의 변화 현상은 인간의 근본적 속성에 대한 전인격적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범죄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경적 접근이 현대사회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성경적 관점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을 죄에 취약한 한계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보고 있다.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다 어떤 동기에 의한 행동인가가 더 중요하고 가치적이고 측정 가능한 범위 이외의 비가시적이고 영적 측면이 더 핵심적인 변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부분적이고 한계 있는 범죄 분석 및 대응을 넘어 일반화된 근본적 접근이 가능하다.

## 2. 가정의 속성에 따른 가정폭력의 특수성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일반화한 범죄 심리의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을 선택한 이유는 가정이라는 영역이 드러난-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일반화된 범죄 심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에 가장 적절한 주제라 여겨진다.

가정폭력의 특수성은 가정이 가진 특징에 기인한다. 먼저 가정은 가장 큰 행복을 제공하는 안락한 장소인 동시에 가장 큰 상처와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과 왜곡이 뿌리 깊게 나타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진 장소이다(이동명, 2006). 가정은 개인의 개체가 가장 많은 영역을 열고 넘나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큰 위와 안락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간에 공격성과 폭력성이 서로에게 향할 경우 상처에 대한 거름망이 없어 더 큰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의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은 긴밀하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는 차단되어 있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은밀하고 폐쇄화되어 이루어지기 쉽다(김주현, 2008, 박순진, 2006; 이원순, 2004).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고, 제 3자의 개입이 어려우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얽혀있어 많은 혼란과 모호성을 내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개입도 해결도 좀처럼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래서 가려진 내면의 폭력성과 공격성, 잔인함이 교묘하게 심화되어 나타나는 범죄행위가 된다.

이렇게 가정폭력은 은밀하고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폭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드러나지 않는 변형된 폭력의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세팅이 된다. 가정폭력의 폭력의 양상은 드러나는 신체적, 성적 폭력의 차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심리적, 사회적 강제나 통제와 같은 드러나지 않는 폭력을 대부분 포함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의 주요 피해자인 아내나 아동들은 만성적 우울 및 무기력감, 심각한 신체 심리적 상처, 폭력의 세대간 대물림, 일탈행위와 부적응, 사회적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고기숙이금옥, 2010; 신선인, 2008). 이는 종종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비인격적이고 파괴적인 의존관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세팅 속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점점 학대에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게 된다. 상대방의 공격성(aggression)이 발견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관심이나 적극성으로 혼동하여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ate와 Henton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신체적인 공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응답자 중 약 4분의 1이 '가해자가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소수의 응답자만이 이것이 증오의 표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공격적 사건이 있을 후 이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관계가 더 나아졌다고 응답하였다(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강한 결속관계는 피해자로 하여금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학대를 벗어나기를 거부하거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낳기도 한다(Horton and Johnson, 1993; 김주현, 2008에서 재인용). 그만큼 가정폭력에서의 폭력은 명백한 범죄의도를 가지고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범죄여부와 범죄수준은 물론 개입방향이든 방식까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이슈이다.

현재 가정폭력의 개념은 폭력의 유형이나 대상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공격을 포함한 폭행과 위협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미만 부부 6쌍 중 1쌍이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0)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더욱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여준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사건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시행한 이후로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최근에는 가정 폭력이라는 용어를 실제적 사실혼과 데이트 관계 속에서의 폭력으로 확대하여 보고 있다. 결국 가정폭력을 정의하는 핵심에는 친밀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여 그 관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부정적 동기와 강압적이고도 위협적인 비인격적 태도,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모호성과 은밀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추세는 행위보다 점점 동기(motive)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 III. 연구절차 및 과정

본 연구는 성경적 시각에 근거하여 범죄와 비행의 발단, 발전, 회복의 심리적 메커니즘(mechanism)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세계관과 성경에 근거하여 교정복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죄행동의 심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범죄 심리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가정폭력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가정폭력의 구체적 양상과 가정 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소통을 범죄 심리에 근거하여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국내외 가정폭력에 관련된 문헌 및 논문 20여 편을 조사하였다. 여기에서는 문헌들에 제시된 사례나 인터뷰, 유형화된 양상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의 기제들이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의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논문들은 주로 근거이론연구나 현상학적 연구와 같은 다양한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담은 질적 연구들이며, 이 외에도 기존 연구들의 흐름이나 추세를 분석하거나 연구결과들을 통합한 연구, 가정폭력 관련 변수들을 포함한 모델링을 시도한 양적 연구들도 포함되었다.

### IV. 연구결과

#### 1.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의 범죄심리 메커니즘

##### 1) 죄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해석

성경적 관점은 인간이 범죄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범죄를 일으키는 동인인 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천적,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죄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성경의 인간에 대한 설명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노력, 의지, 지식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드러난 심각한 범죄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갈등, 즉 심리적 신체적 영적 손상과 한계, 불의한 동기로 인한 사회문제와 갈등 등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본질과 범죄성향(범죄성)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사랑, 보호,

인도를 통해 누리는 평안, 기쁨, 안식, 생명, 자유, 성숙을 누릴 수 없는 무지와 불안과 고통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창세기 3장 7-24절) 인류 첫 조상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류의 내면에 뿌리내린 범죄성이 이후의 구체적인 범죄행동들을 낳게 하는 성향, 즉 근본적 죄의 체질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범죄를 짓게 하는 성향을 성경에서는 죄(sin)라고 정의한다. 범죄가 구체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행동이라면 죄는 그 결과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동기와 내면의 성향(혹은 방향성)이다.

죄(sin)는 반드시 범죄(crime)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면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한다.(마태복음 5장 21-22절) 살인이나 폭력의 충동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제하였다면 그것은 내면의 죄가 범죄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이다. 반대로 범죄(crime)는 반드시 그 이전에 개인의 죄(sin) 혹은 집단의 죄를 전제한다. 구체적인 범죄행동은 죄가 드러난 결과이다. 성경에서는 인류가 죄를 품기 시작한 결과로 모든 인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로마서 6장 12절) 최초의 인류가 범한 죄가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범죄행동을 자연스럽게 발생시킬 수 있는 경향성(성향, 범죄성)을 내면에 뿌리깊이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 모든 인류는 출생부터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비극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성경에서는 인류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자신과 이웃,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의 단절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상실한 결과는 자신과 가족, 이웃, 소자와 환경을 대하는 태도의 손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담과 하와 이후 첫 살인은 그들의 첫 후손인 가인에 의해 일어났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설정으로 자기중심의 일방적 소통을 시도한 결과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를 누리는 동생을 보고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자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원한을 이웃을 향한 폭력으로 터뜨려 동생을 죽이는 비극을 초래했다.(창세기 4장 1-8절) 내부의 동기인 분노와 시기, 미움의 죄가 살인이라는 드러난 범죄행동으로 표출되었다.

## 2) 비인격성-자기 이상숭배, 비인격화

죄성 혹은 범죄성향이 일상의 태도, 관계, 행동, 생각, 감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비인격성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범죄의 심리적 메커니즘의 기저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인격성의 결여 혹은 훼손이 있다. 인격성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의 건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다움'의 속성, 즉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속성이다. 인격성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현하고 성취하고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비인격이란 인격체인 자신과 상대방을 비인격(非人格)인 사물과 같이 대하는 것이다. 즉,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과 상대방을 인격이 없는 사물과 같이 대함으로써 응당 전제해야 할 생명과 가치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의 생명과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비하되며 가치의 우선순위가 뒤바뀐다. 인격체의 삶이 황폐화되고 도덕성과 거룩성이 손상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엄한 생명의 가치와 역할을 훼손하게 된다.

이러한 비인격은 극도의 자기중심성과 자기 절대화로 나타난다. 범죄는 결국 내가 내 감정과 욕구대로 인격체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또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지시, 명령,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신에게 지위를 부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인격성의 핵심은 자기 우상이다. 상대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대상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상대를 '존귀한 가치를 가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대하는 비인격성은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인격화로 인해 비인격화된 내면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비인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비인격화의 단계는 자기 자신에서 타인으로 사회로 확장된다.

### 3) 범죄심리의 메커니즘—통제, 조종, 자격

범죄행동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내면적 속성은 죄성이 전제된 비인격성으로 설명된다. 비인격성은 상대방을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격)'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비인격, 물건과 같은 존재)로 대하는 속성을 포괄적으로 칭하는 개념으로 범죄 심리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비인격성은 타인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즉, 가정 내에서 주 가해자인 남편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고 만성화된 폭력에 비인격화된 아내가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거나 가해자 외 다른 관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착취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스스로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비인격화는 세부적으로 다음의 통제, 조종, 자격의 심리적 동기 혹은 상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

#### ① 통제(Control, Possessiveness)

비인격성에 기인한 범죄 심리의 첫 번째 기제는 통제의 기제이다. 이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사실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은 물건밖에 없다. 인격은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면 인격을 비(非)인격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는 상대를 비인격화시켜 소유나 통제가 가능한 물건처럼 여기면서 가해자인 자신은 절대화하는 자기신격화를 시도하게 된다. 통제의 기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생각이나 말부터 태도, 행동까지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내가 통제하고 싶다.

-상대방(배우자, 자녀, 친구 등)의 행동과 생각, 감정, 관계를 내가 결정하고 싶다.

-그녀(그)는 나의 것이다.

자신의 의도에 상대방이 따르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통제의 범위는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말, 행동, 태도에서부터 생각, 느낌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수준 또한 상대방의 의도는 상관없다. 여기에서 통제하는 상대방은 배우자나 자녀, 친구 등 누구나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모든 결정을 자신이 대신 한다. 이러한 통제심리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어지며 상대에 대한 비난, 언어폭력, 잔인한 태도와 행동, 소외시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상대를 소유한 상태에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의 권한이 모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비난이나 언어폭력, 잔인한 행동이나 소외시키는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다. 자신의 의도에 상대방이 전적으로 맞추는 것이 당연시되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 의지는 부인된다. 언어적, 심리적 위협이나 육체적, 성적 폭력이 통제 심리에 의해 행사한다.

여기서 통제가 드러나는 방식은 자기 통제와 타인 통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자신(자아)에 대한 비인격적 통제방식은 강박적으로 스스로를 심판하고 가혹하는 정서(우울증, 정신분열적 증상, 신경증적 증상 등)나 자기파멸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현대에는 인간에 대한 가치로써 자신과 타인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 여성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폭식증이나 거식증 등의 섭식장애행동도 그러한 대표적인 자기파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통제는 타인의 욕구나 정서, 가치를 부인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소유를 일방적으로 강탈하여 취득하는 구체적인 신체적, 사회적, 성적 폭력으로 나타난다.

### ② 자격(Entitlement, Superiority)

자격은 자신을 극도로 높이는 것으로 자신의 판단과 위치와 자격을 상대방보다 훨씬 우위의 수준에 두려는 심리이다. 인격적이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자신과 상대를 동등한 인격으로 본다. 그러나 비인격적 관계는 대인관계를 마치 신과 인간, 혹은 인간과 동물, 물건과 같이 동등한 위치가 아닌 자신은 높이고 상대방을 낮게 본다. 이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대에 대한 무시와 판단, 정죄이다. 이 모든 것이 위치와 자격의 차이를 두는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그럴만한 권리와 자격이 있다.

-나의 생각과 욕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Selfishness & Self-centeredness)

-나의 지위는 정당하며 유지되어야 한다.

-나의 생각이 옳고 우월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기심과 무례함으로 드러난다.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비난, 판단 등이 정당화된다. 극도의 자기 절대화가 당연시된다. 자격의 심리를 보이는 경우 내가 훨씬 높은 지위에 있고 상대방의 욕구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나의 요구나 폭력은 정당화되고 책임은 회피하게 된다.

### ③ 속임수(조종, Manipulation, Victim Blaming)

속임수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의도를 조종한다는 점에서 조종이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상대방이나 주변인물을 속이는 것이다. 이러한 조종의 기제는 속임이 동반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서 피해자의 모순된 감정의 예속(tramatic bonds)을 초래한다. 가해자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왜곡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학대와 가해가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가해자의 폭력인지 사이에서 혼동하게 된다. 또한 가해자의 폭력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여 분노와 증오를 함께 느끼는 등 양가감정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지속적인 범죄의 가해와 피해 관계 속에서 반복적인 혼동과 속임이 있을 때 폭력을 공고하게 만든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속임수, 헐박, 사기행동

-행동에 대한 주변(공공)의 인식을 속이고 혼동을 줌

-주변의 비난과 책임이 피해자에게 돌아감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게 된다. 자신의 입장과 욕구를 신격화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회피하기 위한 자기우상화와 비인격화의 발로이다. 가해자는 최대한 자신의 가해의도와 가해행동을 속이려는 동기에서 아주 교묘하게 상대방을 가해하며, 자신의 내면과 정 반대의 이미지를 외적으로 꾸미기도 한다. 가정폭력이나 연쇄살인과 같은 범죄의 가해자들이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내성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쉽고 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세 가지 메커니즘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에는 비인격성과 자기 우상화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그 결과는 공통적으로 인격의 손상, 파괴, 상처로 나타난다.

아래의 <그림 1>은 이러한 비인격성의 세 가지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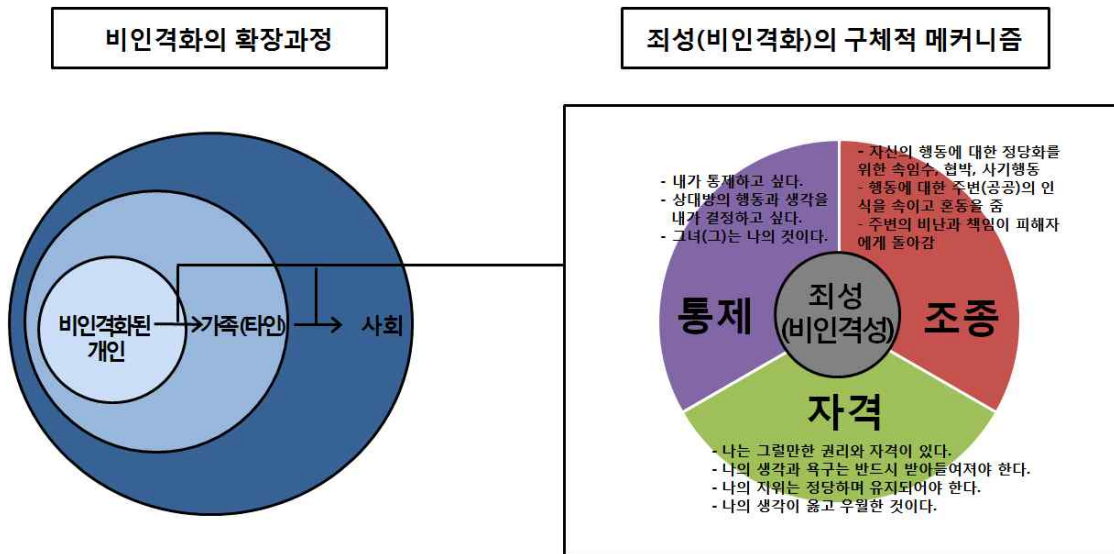


그림 1. 범죄 심리의 구체적 메커니즘과 확장과정

4) 자신에 대한 범죄와 타인에 대한 범죄-폭력(범죄)의 다차원적 범주와 스펙트럼

범죄 심리를 일반화하여 설명할 때 폭력의 다차원적 범주와 스펙트럼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범죄의 의도와 메커니즘은 동일하되 그 방향이 어느 대상을 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의도가 가시적 영역이나 비가시적 영역이나,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도 큰 손상으로 나타났느냐 미미한 손상으로 드러났느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및 비행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를 고려할 때 이러한 다양성의 측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드러난 범죄행동에 대해 법적, 혹은 사회적 대처를 하는데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과 드러난 손상의 정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해결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 심리를 일반화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다차원적 고려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현실적 대처문제를 넘어 개인과 가족, 사회를 아우르는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범죄성을 이야기할 때 타인에 대한 범죄만 생각할 수 있으나 비인격성은 자신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울증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는 못하나 동일한 폭력의도를 자신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자신을 자학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품고 학대한다. 자기 파괴적 생각과 행동을 반복한다. 시간낭비나 경제적 파산 등 본질적 측면의 자기 파괴적 행동을 일삼는다. 이러한 행동을 범죄행동인지 구분

하는 것은 내면의 동기가 기준이 된다.

폭력의 스펙트럼(비인격적 태도의 스펙트럼)을 볼 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폭력이 잘 용인되지 않는 여성의 경우 폭력의 대상인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이 자신에게 폭력을 일삼게 되는 양상이 자주 발견된다. 여성이 자신에게 하는 대표적인 비인격성의 양상은 자신의 생각, 행동, 감정, 외모, 관계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규제하여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다. 또는 상대방을 간접적, 비폭력적 방법으로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비정상적 통제로 인해 나타나는 중세 중의 하나가 섭식장애이다.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는 이 사회에서 원하는 체중에 못 미치므로 조금만 먹고 자신을 계속해서 가혹하고 욕구를 절제하다가 폭발하게 된다. 이는 먹고 토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자신에 대한 비인격적 태도는 자만감과 열등감으로도 나타난다. 사실에 기반한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인격적 태도라는 점에서 열등감과 자만심 모두 자신에 대한 비인격적 태도이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만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만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비인격적 태도는 이렇게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으며 가시적 영역과 비가시적 영역의 다양한 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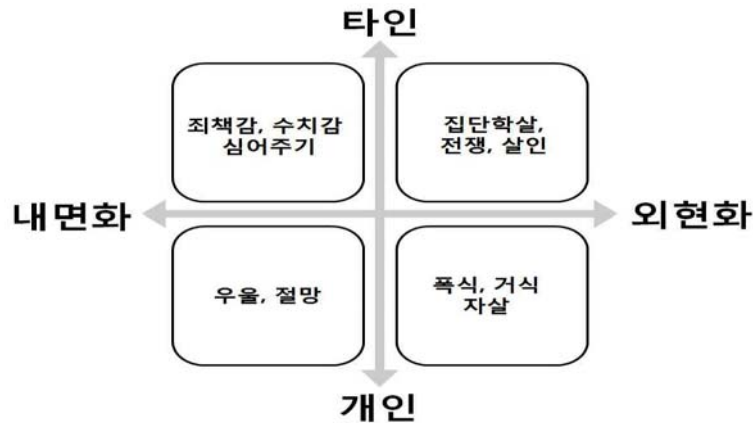


그림 2. 비인격화(범죄행동)의 다양한 차원과 스펙트럼 적용의 예

## 2.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범죄 심리 분석-가정폭력에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성경적 시각에 근거하여 범죄의 심리적 기제를 제시하고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그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구체적 양상과 가정 내 피해자 간의 소통을 설명하는 국내외 가정폭력에 관련된 문헌 및 논문들을 대상으로 문헌들에 제시된 가정폭력의 사례나 인터뷰, 유형화된 양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는 가정폭력에 나타난 다양한 폭력행사동과 의사소통 방식들을 동기와 속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범죄심리의 통제, 자격, 조종의 기제는 각각 다른 방식과 수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타인파괴적 행동(아내폭력, 자녀폭력), 아내의 타인파괴적 행동(자녀폭력) 및 자기파괴적 행동, 자녀의 폭력대물림의 악순환적 구조를 보여주었다.

	속성	내면 동기	가해자(주로 타인(파멸적))	피해자(주로 자기(파멸적))
통제	<p>폐쇄화</p> <p>-내가 통제하고 싶다. -상대방(배우자, 자녀, 친구 등)의 행동과 생각, 감정, 관계를 내가 결정하고 싶다. -그녀(그)는 나의 것이다.</p>	<p>심리적 폭력(감정표현이 통제됨/언어적, 심리적 위협) 신체폭력(예상치 못한 순간에 매 맞음/임신 중에 맞음/이혼 후에도 폭력을 당함) 성적 폭력(강제적 성생활) 경제적 폭력(경제적으로 통제/부채 때문에 떠나지 못함) 자녀폭행(남편이 자식을 때림)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결정, 비난, 언어폭력, 잔인한 태도와 행동, 소외시킴(남편이 놔주지 않음/외부와 단절됨)</p>	<p>심리적 폭력/심리적 질현(우울증, 정신분열적 증상, 신경증적 증상 등) 신체적 폭력(자해/자살) 중독(알코올에 의존함) 신체화 증상/섭식장애 무력화(불안/살의 미래가 없음/내면에 힘이 빠짐)</p>	
비인격성	<p>우상화</p> <p>-나는 그럴만한 권리와 자격이 있다. -나의 생각과 욕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Selfishness &amp; Self-centeredness) -나의 지위는 정당하며 유지되어야 한다.</p>	<p>이기심, 무례함, 무책임한 행동(남편의 습관적 외도/음주와 폭언의 연속 /공평한 삶/남편의 무책임/시모가 부부갈등 부추김)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비난, 판단 자기의견과 욕구의 절대화/우상화(남편이 무조건 옳다고 해야 함/모든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음/남편의 요구대로 움직임) 자기약점을 감추기 위한 이용수단(약점이 드러나면 손이 올라감)</p>	<p>(소극적)이기심과 무례함 (소극적인)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비난, 판단 자기비하(이혼녀라는 낙인) 자녀에 대한 무책임/책임회피/자녀폭력(자녀양육에 영향을 줌/이혼할 생각에 애착회피/우울증으로 장애자녀 출산)</p>	
조종	<p>거짓 / 왜곡</p> <p>-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속임수, 협박, 사기행동 -행동에 대한 주변(공공)의 인식을 속이고 혼동을 줌 -주변의 비난과 책임이 피해자에게 돌아감</p>	<p>피해자에게 책임전가(자식이 매 맞는 엄마를 목격함, 아내에 대해 자녀들에게 욕함, 아내에 대한 비하/세뇌적으로 비하당함)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에 대한 비난(남편이 친정식구를 폭행함, 아내와 친정식구들에 대해 욕함) 죄책감, 자기합리화, 자기정당화 피해자의 모순된 감정의 예측(traumatic bonds)</p>	<p>분노와 증오, 혼동된 감정 죄책감(아버지 역할이 필요함) 심리적 의존(의존적인 상태가 됨/심리적으로 의존함) 자기포기(내면의 힘이 빠짐/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음) 학대관계 지속(끝까지 미련이 남음/남편이 그리워 들어감/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귀함)</p>	

표 1. 가정폭력의 양상에서 나타난 범죄 심리의 기제

## V. 결론

학문과 신앙의 통합은 기독교적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연구자라면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진지한 배움을 표방하는 연구자로서 자연스럽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특히 연구영역에서의 이론 개발 및 실천체계 구축이 삶과 동떨어질 수 없는 사회복지, 상담, 심리, 교육, 사회, 정치 등의 인문사회 연구 분야는 이러한 고민을 더욱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성경에 근거한 교정 복지<sup>200)</sup> 일반화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가정이라는 구체적 영역 안에서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은밀한 범죄인 가정폭력으로 드러나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각론적 시도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대로 인격체를 통제하고, 가해사실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감정과 사고를 조종하고,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지시, 명령, 판단하며 자신에게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는 자기 절대화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비인격적 동기는 보이는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 언어적 폭언 및 협박에서부터 경제적 제한이나 관계의 통제와 같은 교묘한 폭력,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혼돈을 주고 폭력적 관계를 공고화시키는 심리적, 영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결국 다른 제 범 죄행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문제역시 개인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며 상대와도 인격적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존재인가와 관련된 본질적 정체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 죄성(罪性)인 비인격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창 2:18)<sup>201)</sup>을 통해 인간이 독처하는 행태가 아닌 함께 거하며 서로 보완하는 공동체의 행태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려주신다.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 하에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이러한 가정이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경쟁과 다툼, 갈등과 폭력의 장이 된 것은 결코 작은 문제로 간과될 수 없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영적 본질과 구조를 성경적 원리(기준)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며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개인의 영성의 회복과 범죄성의 극복을 통해 각 개인을 인격적으로 세우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가족구성원들이 성경적 원리(철학)와 기준을 토대로 가정의 운영원칙과 기준, 가정의 비전, 구체적 단증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원칙대로 가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폭력의 문제는 보이는 폭력의 수준과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건을 수습하려는 시도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외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폐쇄성과 은밀성을 가진 상황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경우 누가 본질적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내면의 통제와 조종적 기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등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결국 인간의 근본 속성을 심리적, 영적, 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이에 대한 현실적, 근본적 대안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통합적 접근이 궁극적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 비행과 범죄에 관한 사회복지의 한 영역인 교정복지의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과 현재 상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성경적 분석들과 사회복지의 다양한 행동이론 및 개입기술을 통합하여 비행과 범죄영역을 재조명하고 이를 인간의 본질적 한계와 변화의 문제로 확대하여 그 원인과 구체적 메커니즘을 해석하고 영성과 이성, 육성의 전 인격에 걸친 인간성 회복에 대한 통합적 대안을 노력'으로 정의된다(박민선, 2012). 이는 다른 의미로 '성경에 근거한 인간다움'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삶 속에서의 한계에 대한 각성과 전인격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교정된 존재로서의 개인이 속한 가정, 학교, 직장,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간 본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전문분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01)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현실적 제안을 몇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부중심의 건강한 가정체계에 대한 교육 및 각성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가정은 육아나 교육 등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크다. 부부를 중심으로 개체에 대한 독립성과 존엄성과 인격성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부 각자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상담, 개입 서비스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서비스 체제에는 성경적 가정의 본질과 영적 구조와 원리 및 기준, 가족에서의 구성원간의 역할과 관계, 경제(개체거리)에 대한 이해, 가정 내에서 합의를 이루고 이를 일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문제해결능력 훈련, 교육, 투자에 대한 현실적 이해, 가정경영과 소통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 심리의 통제, 조종, 자격의 기체에 따른 폭력방식이 교육되고 홍보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하며, 폭력에 대해 인정하기를 꺼리며 계속해서 낭만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폭력의 왜곡과 심화를 초래한다.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폭력적 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먼저 자신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일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폐쇄성을 열고 하나님의 인격성 앞에 자신을 조명하여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도울 수 있는 영적 개입이 가장 중요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더불어 실질적 관계 형성과 유지, 발전에 대한 현실적 시도와 지속적인 개입 및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필요에 대한 복지적 개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상들에게는 초기-중기-말기에 따른 다양한 현실적인 대안과 정보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프로그램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의해 먼저 시도되어야 한다. 자신의 신앙고백을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로 확장될 때 사회 구성원들의 각성과 가정의 놀라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과학 영역에서 기존 학문의 제 이론과 관련용어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구속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통합하는 일은 단순히 기독교용어를 사용하여 형식적인 설득을 시도하려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도모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바탕이 된 도모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 연구자 및 실천가들이 먼저 기독교적 원리가 체득된 복음적 삶을 실제로 살아냄으로써 삶 속에서의 제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서부터 개인과 가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 박민선(2012).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기독교 세계관에근거한 교정복지 연구 및 실천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7(3), 145-180.  
 여성가족부(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이원복·김미숙·박민선·박혜련(2011).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최옥채(2006), 교정복지론(제5판), 학지사:서울.  
 김은경(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제 18권 제 3호, pp.1159-1188.

- 이진국·오영근(2008).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범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김용세·류병관(2006).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범의 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이숙경·홍정민(2011).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 측정도구 개발-노인범죄증가와 관련하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 25권 제 2호 pp. 244-254.
- 이수정·허재홍(2004). 잠재적 범죄위험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 10권 제 2호 pp. 39-77.
- 김지선(2003).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코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 76호 pp. 33-38.
- 이동명(2006). 가정폭력의 본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 21호 pp. 233-251.
- 노영주·서동인·원효중 역(2001). 캐슬린 M. 켈빈·버나드 J. 브롬멜 저,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하우.
- 김주현(2008). 가정폭력피해여성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13권 1호 pp. 271-297.
- 박순진(2006). 배우자 살해의 유형과 특징.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22권 191-227.
- 고기숙·이금옥(2010).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연구-, 피해자학연구, 제 18권 제 2호
- 이원숙(2004).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상담에 나타난 부부강간-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pp.233-235.
- 신선인(2008).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vol. 23. pp. 153-182.
- Johnson, B. (2011). More God, less crime: why faith matters and how it could matter more, PA: Templeton Press.
- Cate, R. M., Henton, J. M., Koval, J. E., Chritopher, F. S., & Lloyd, S. A.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 Henton, J. M., Cate, R. M., Koval, J. E., Lloyd, S. A., & Christopher, F. S.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3, 467-482.
- McCold, P.(2003). Repositioning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Criminal Justice and Social Context, William Publishing.